

# 하나은행, 글로벌 스마트폰뱅킹 홍콩 서비스 개시 ‘간편송금’ 기능으로 편리함 극대화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글로벌 스마트폰뱅킹 앱 ‘글로벌원큐’의 홍콩지역 서비스를 최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글로벌원큐를 캐나다에 출시한 이래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일본, 파나마, 베트남에 이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인 홍콩에 국내 은행 최초로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홍콩 서비스 출시를 계기로 손님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글로벌원큐는 별도의 국가 선택 과정 없이 해당국을 자동으로 인식해 로그인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OTP 사용으로 기존 OTP의 배터리 방전, 분실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최근 이체 내용 확인 후 금액만 수정해 간단하게 송금 할 수 있는 ‘간편송금’ 기능을 통해 편리함을 극대화했고 해외 출장이 잦은 기업 임원들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히 승인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결재할 수 있는 ‘기업결재함’ 기능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하나의 앱으로 국가별 확장 적용이 가능한 글로벌원큐 서비스를 통해 손님은 ▲ 계좌조회 ▲ 대출 조회 ▲ 국내외 송금 ▲ 자동이체 ▲ 환율안내 ▲ 상품안내 ▲ 지점안내 ▲ 기업결재함 등의 다양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한준성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앞서 시행한 국가의 스마트폰뱅킹 이용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등 해외 이용 손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며 “전 세계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현재 총 24개국에 12개 법인, 18개 지점, 4개 사무소로 국내 시중은행 중 최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 중이며, 글로벌 디지털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⑦